

‘지난주 반타작’ 이범호호, 이번주 승률 올릴까

9~11일 LG전·12~14일 한화전
지난주 3승3패...단독 2위 유지
서건창·최원준·김선빈 등 활약
내일 시즌 첫 주 2회 등판 예정
실책 리그 최다 9개 극복 과제



이범호 감독 체제로
새출발한 뒤 삼성라이
온즈에 일격을 당하며
시즌 첫 루징 시리즈를

안은 KIA타이거즈가 4월 둘째 주 분위기
반전을 노린다. 순위는 단독 2위를 유지
하고 있지만 지난주 3승 3패로 주춤했던
만큼 상위권 경쟁 상대인 LG트윈스와 한
화이글스를 상대로 다시 기세를 올리겠다
는 각오다.

KIA는 9일부터 LG와 2024 신한 SOL
뱅크 KBO 리그 홈 주중 3연전, 12일부터
한화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. 앞서
KT에 2승 1패로 워닝 시리즈를 챙긴 뒤
삼성에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은
KIA는 올 시즌 8승 4패(승률 0.667)로
2위를 유지하고 있다.

순위는 변동이 없었지만 뼈아픈 한 주
였다. 하위권에 머물렀던 KT와 삼성을
상대로 3승 3패에 그치면서 선두 도약의
기회를 놓쳤다. 이범호 감독이 사령탑을
맡은 뒤 처음으로 루징 시리즈를 떠안으
며 3연속 워닝 시리즈의 좋은 흐름도 끊겼
다.

선발 양현종은 두 차례 등판해 2일 KT
전 5.1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지만 7일 삼

2024 KBO리그 순위 (8일 현재)									
순위	구단	게임	승	패	무	승률	승차		
1	NC	13	9	4	0	0.692	-		
2	KIA	12	8	4	0	0.667	0.5		
3	키움	11	7	4	0	0.636	1		
4	LG	14	8	5	1	0.615	1		
	한화	13	8	5	0	0.615	1		
6	SSG	14	8	6	0	0.571	1.5		
7	두산	14	5	9	0	0.357	4.5		
8	롯데	12	4	8	0	0.333	4.5		
	삼성	13	4	8	1	0.333	4.5		
10	KT	14	3	11	0	0.214	6.5		

성전 6이닝 3실점으로 영점을 잡았다. 이
의리가 4일 KT전 5이닝 2실점, 윌 크로
우가 5일 삼성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
지만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윤영철
은 6일 삼성전 4.2이닝 4실점으로 고전을
면치 못했다.

불펜도 흔들렸다. 필승조 장현식이 4경
기 4.1이닝 2실점(1자책점), 전상현이 3
경기 2.2이닝 3실점, 최지민이 3경기 2.1
이닝 1실점(무자책점)으로 부침을 겪었
고 추격조 김대우(1경기 0이닝 2실점)와
황동하(1경기 1.2이닝 4실점 무자책점),
이형범(3경기 2이닝 1실점)과 김건국
(2경기 1.1이닝 3실점 2자책점)이 주춤했
다.

야수진에서는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부
진이 두드러졌다. 소크라테스는 지난주 6
경기에서 타율이 0.130(23타수 3안타)
에 그쳤다. 홈런도 한차례에 그치면서 1
타점 2득점에 그쳤다. 그나마 서건창이
0.421, 최원준이 0.381, 김선빈이 0.353



KIA타이거즈가 9일부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 주중 3연전, 12일부터 한화이글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. KIA타이거즈 제공

으로 분전했다.
●9~11일 LG트윈스전(광주-기아챔피
언스필드)

지난해 챔피언인 LG는 지난주 4승 2패
로 5위에서 공동 4위로 한 단계 약진했
다. 안방에서 NC와 KT에 2승1패로 워닝
시리즈를 챙기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
데 성공했다.

LG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4.89,
이닝 당 출루 허용률은 1.67로 높은 편이
었지만 팀 타율이 0.315, OPS(출루율+
장타율)가 0.859로 높아 공격 지표가 수
비 지표에서 약점을 상쇄했다.

LG는 손주영, 디트릭 엔스, 임찬규로
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. 이
들은 모두 지난주 부진한 투구 내용을 보

였다. 손주영은 무실점했지만 4이닝을 소
화하는데 그쳤고 엔스는 4이닝 7실점, 임
찬규는 3.2이닝 4실점으로 난타당했다.

타선에서는 박동원을 필두로 홍창기,
오스틴 딘, 문보경이 맹활약을 펼쳤다. 박
동원은 주간 타율 0.471(17타수 8안타),
홍창기는 0.400(20타수 8안타), 오스틴
은 0.360(25타수 9안타), 문보경은
0.348(23타수 8안타)을 기록했고 현재
홍창기는 KBO 리그 득점 공동 1위, 오스
틴은 타점 공동 1위에 올라 있다.

KIA는 제임스 네일, 이의리, 윌 크로우
가 선발 출격을 대기한다. 네일은 한국 무
대 데뷔 후 첫 주 2회 등판을 소화한다. 이
들이 모두 지난주 승리 투수가 됐는데 그
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.

●12~14일 한화이글스전(대전 한화생
명이글스파크)

지난해 9위에 머물렀던 한화는 류현진
의 복귀와 함께 김강민, 안치홍, 이재원을
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. 지난주 1
승 4패로 주춤했던 단독 1위에서 공동 4
위까지 떨어졌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상대
로 변신했다.

한화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5.11로
높았고 팀 타율은 0.241에 그쳤다. 리카
르도 산체스가 5.2이닝 무실점으로 문을
열었지만 문동주가 5이닝 4실점, 류현진
이 4.1이닝 9실점, 펠릭스 페냐가 3이닝
6실점(4자책점)으로 줄줄이 무너졌다.
김민우가 7이닝 3실점으로 분위기 반전
에 성공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.

타선에서는 노시환과 요나단 페라자가
분전했다. 노시환이 두 개 홈런을 포함 주
간 타율 0.368(19타수 7안타)을 기록하
면서 올 시즌 홈런 2위로 올라섰고 페라자
역시 두 개의 홈런을 포함해 0.350(20타
수 7안타)를 기록하며 타율과 홈런 단독
1위, 안타 단독 2위, 득점 공동 3위로 맹
활약을 이어갔다.

한화는 로테이션상 큰 변수가 없다면
페냐와 김민우, 산체스가 선발로 마운드
에 오를 상황이다. KIA는 윤영철, 양현
종, 네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선발
에서는 무난한 투구를 이어가고 수비에서
실책을 줄여 투수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
다. KIA는 지난주 9실책으로 최다를 기
록했고 시즌 누적 역시 17개(평균 1.42
개)로 최다다. **한규빈 기자**

“광주서구청 펜싱 기술 배우러 왔어요”

대만·싱가포르 고교 20여명
광주서 13일까지 전지훈련
전 국내 최은숙 등과 훈련

“틱 틱, 쓰읍, 삐익.” 8일 오전 광주 염주
종합체육단지 국민생활관 펜싱장에는 펜
싱 선수들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신발
이 피스트(펜싱장 마룻바닥)에 긁히는 소
리들로 요란했다. 한참 동안 대련을 하던
선수들은 마스크를 잠시 벗고 땀범벅이
된 얼굴을 수건으로 닦은 뒤 다시 훈련 모
드로 돌입했다.

대만과 싱가포르 고교 펜싱 선수단이
광주에서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.
강영미, 최은숙, 김재원, 이정함 등 전
현직 국가대표를 보유한 광주 서구청 펜
싱선수단에게 우수 펜싱 기술과 경기 운
영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다.

대만 종진고 펜싱선수단 20명(선수 17
·지도자 3명)과 싱가포르 주니어 국가대
표 선수단 2명(선수 1·지도자 1명)이 지

난 2일부터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
고 있다.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광주 서구
청 펜싱팀과 함께 합동훈련을 이어간다.

이번 전지훈련에는 대만 장중카이
(18)와 싱가포르 아즈파 영(18) 등 주니
어 국가대표 5명이 포함됐다. 이들은 오
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세
계유소년·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
수 기량을 가진 서구청 선수들과 연습경
기를 통해 기량과 경기 운영 능력 향상을
 꾀하고 있다.

대만과 싱가포르 고등학생 객객들은 오
전에는 기본기 훈련과 전문체력 향상, 단
체 및 개인 레슨을, 오후에는 전술 운영 능
력 향상을 위한 연습 경기 등으로 경기력
을 끌어올리고 있다.

이들이 전지훈련지로 광주를 택한 이유
는 홍콩 국가대표 응호틴의 추천 때문이
다.

서구청 이승현 선수와 친한 응호틴이
지난 1월 4~12일 광주에서 서구청과 합동



대만과 싱가포르 고등학교 펜싱 선수들이 8일 광주 염주종합체육단지 국민생활관 펜싱장에서 광주 서구청 펜싱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.

훈련을 한 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그랑
프리에서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고,
대만 종진고 지도자에게 서구청의 우수
기량을 소개하면서 전지훈련이 이뤄졌
다.

팅 홍카이 대만 종진고 에베코치는 “펜
싱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한 전지훈련지를
찾던 중 응호틴에게 광주 서구청 펜싱팀
이 강팀이라는 얘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

서 왔다”며 “대만 전국 고교 대회와 세계
유소년·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
선수들이 레슨과 연습경기를 통해 기량
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이번 전지훈련 선수단은 광주에 대한
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.

아즈파 영(18)은 “서구청 선수들의 짜
르키 타이밍과 반응 속도가 빠르다. 실력
수준이 높아 내 기량이 향상되는 느낌을

받고 있어 만족스럽다”며 “광주 전지훈련
의 성과가 세계유소년·청소년선수권대회
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
하며 열심히 배우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체육관광
과 직원들은 지난 4일 훈련 중인 대만과
싱가포르 고교 선수단에게 배낭과 빵 등
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.

글·사진·최동한 기자

‘무실점 4연승’ 전남, 내일 수원서 선두 탈환 노린다



전남드래곤즈가 최근
김포FC와 강릉시민축구
단, 천안시FC, 부산아
이파크를 모두 연파하며
코리아컵 포함 무실점 4
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3일 간격으로
펼쳐지는 수원삼성전과 원정 경기에서 선두
탈환을 노린다.

전남은 1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월드컵
경기장에서 수원과 하나은행 K리그
2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. 지
난 라운드 부산 원정에 이어 다시 한번 적
지로 떠나는 전남이다.

전남은 지난 7일 부산과 5라운드 원정
경기에서 1-0 신승을 거뒀다. 전반 39분
최성진의 중거리슛이 골포스트를 강타하

는 불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, 후
반 28분 발디비아의 코너킥이 문전 경합
상황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김종민
이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승리를 만들어
냈다.

특히 전남은 이날 승리로 최근 4경기에
서 무실점 승리를 달랐다. 앞서 천안에 1-
0, 강릉에 1-0, 김포에 4-0으로 이기며 코
리아컵 2라운드 경기를 포함해 최상의 수
비력을 자랑했던 전남은 상승세를 유지하

게 됐다.

순위 역시 2위까지 뛰어올랐다. 전남은
올해 K리그2에서 3승 1패(승점 9·득점
6)를 기록했고, 승점 동률인 수원(득점
5)을 상대로 다득점에서 앞서며 선두 안
양(승점 10)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.

전남은 선두 탈환의 기회에서 난적인
수원을 만난다. 양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
은 2018년 8월로 두 팀은 약 5년 8개월 만
에 승부를 겨루게 됐다. 전남은 수원에 역

대 전적 21승 17무 33패로 열세지만 당시
화끈한 공격적 끝에 6-4 승리를 거뒀다.

이장관 감독은 체력적인 부담 속에도
올 시즌 6득점 1실점의 공수 균형을 유지
하겠다는 구상이다. 이 감독은 구단을 통
해 “짧은 시간이지만 회복에 집중하고 있
다”며 “수원 원정의 분위기를 이겨내고 즐
겨야 한다.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
회에서 욕심을 내보겠다”고 각오를 다졌
다. **한규빈 기자**